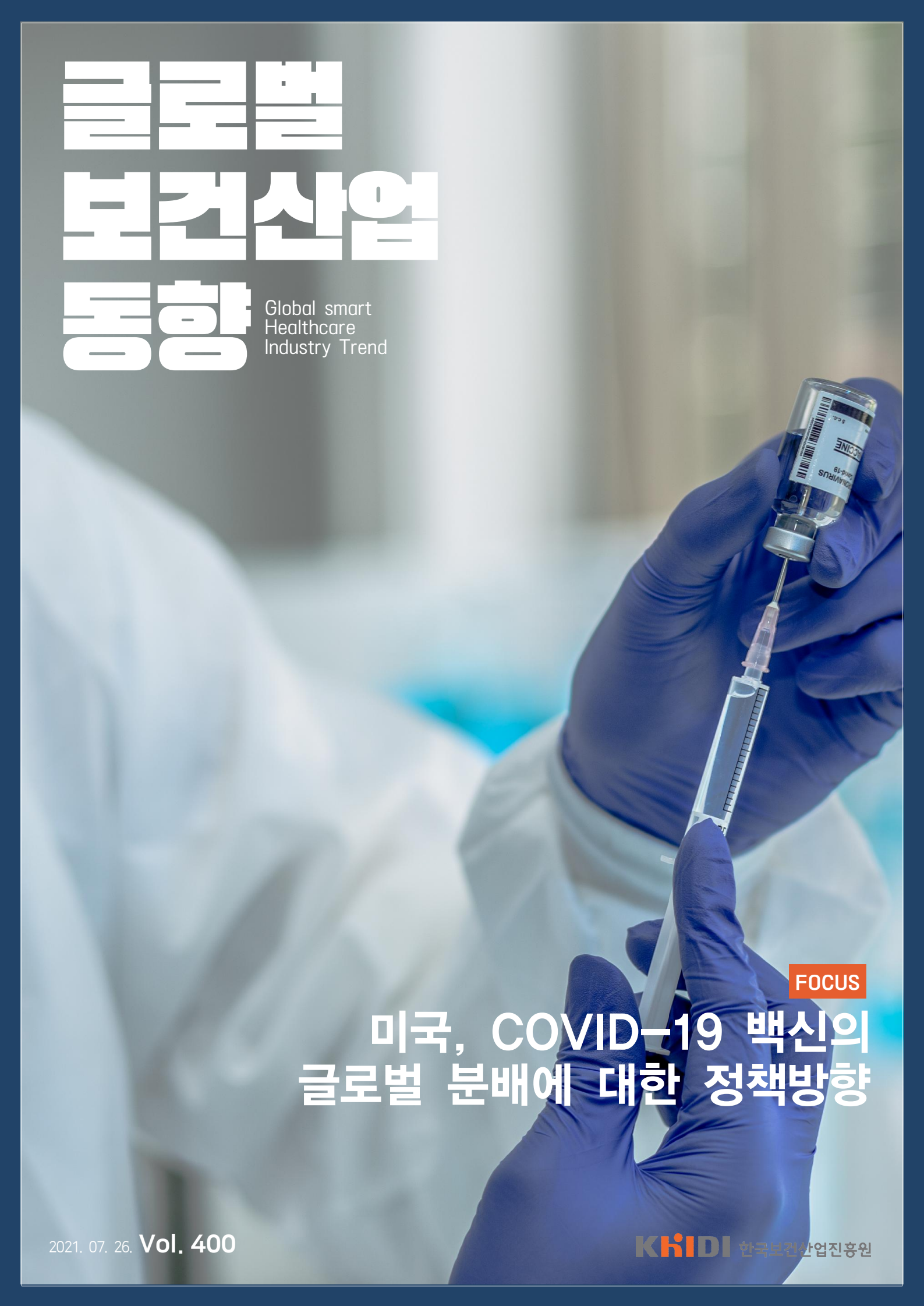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미국, COVID-19 백신의 글로벌 분배에 대한 정책방향

2021. 07. 26. Vol. 400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21.07.26
Volume 400

CONTENTS

01 포커스

- 미국, COVID-19 백신의 글로벌 분배에 대한 정책방향 ····· 1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Fitbit, COVID-19 감염자의 신체와 행동 변화 추적에 유용 ····· 4
- 미국, COVID-19 확산 기간 중 22개주 원격의료법 개정 ····· 4
- 영국 DHSC, Post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데이터 전략 발표 ····· 5
- 유럽, 일상적인 건강정보시스템의 개선 필요 ····· 5
- 의료헬스케어 분야, 패러다임 전환이 가져올 변화 ····· 6
- 모바일헬스앱,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프라이버시 정책 강화 필요 ····· 6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응급실 이용을 기피하는 자기부담금 높은 보험 가입자 ····· 7
- 미국, 제약회사의 합병 평가시 법적·경제적 효율성 검토 ····· 7
- 영국 의료기기 제품, '23년부터 UKCA 마크 획득 필요 ····· 8
- 영국, 향후 10년동안의 생명과학 비전 제시 ····· 8
- 일본, COVID-19 백신 개발에 관한 과제 및 대책 ····· 9
- 중국, 미용 및 퍼스널 케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 ····· 9
- 백신관광, COVID-19 시대에 새로운 의료관광의 형태로 부상 ····· 10
- WHO, 중증 COVID-19 치료제로 인터루킨-6 수용체 차단제 권고 ····· 10

미국, COVID-19 백신의 글로벌 분배에 대한 정책방향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글로벌 COVID-19 백신 분배 핸드북(Global COVID-19 Vaccine Distribution Handbook)을 통해, 환경파괴와 기후 변화와 연계된 COVID-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한 글로벌 차원의 백신 공급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

[1]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백신 분배의 필요성

■ **COVID-19의 영향으로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되고, 보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80%의 집단면역을 달성하기까지 글로벌 백신 분배에 있어 미국정부의 리더십이 중요**

- 미국은 전 인구의 전인구의 50%에 육박하는 비율로 백신 접종을 마친 상황이지만, 저소득 국가나 중위권 소득 국가들의 접종비율은 1%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부상
-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과 전 세계를 COVID-19의 피해로부터 복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을 전 세계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필요한 공급망, 정책 역량, 자원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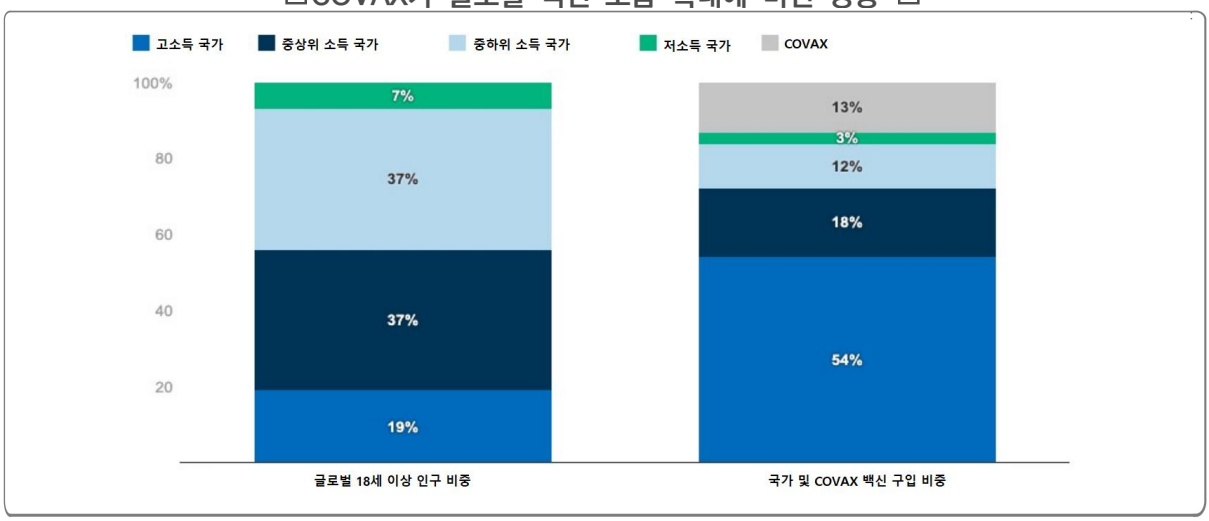
■ **백신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개발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재앙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COVID-19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순히 방어적인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사전 예방적이고 예측적인 조치가 필요**

- 인도는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COVID-19 팬데믹의 중심이 되었으며, '21년 3월부터 5월까지 인도의 하루 평균 환자수는 2,400% 이상 증가했고 6월 1일까지 공식 사망자수는 100만 명을 기록하였고, 인도발, 남아프리카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혼재되어 확산
- 인도는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1년 6월 현재 인구의 3.4%만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할 정도로 인도 자국내 공급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
- 인도의 위기는 비록 미국 또는 선진국의 자국내 백신 접종률이 높을 수 있지만, 전 세계 국가와 사람들이 안전할 때까지 세상은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시사

■ 미국과 동맹국들은 강력한 민-관 파트너십과 글로벌 물류 기업들을 통해 백신의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백신의 글로벌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기구인 코백스(COVAX)를 통한 다자간 협력구조의 강화가 필요

- COVAX는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으며 유니세프(UNICEF)와 같은 다른 파트너와 함께 납품을 시작
- '21년 4월부터 발표된 COVAX 발표에 따라 '21년 말까지 최소 20억회분 백신 투여량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이것은 중저소득국가(LMIC) 인구의 30% 이하를 차지
- '21년말까지 COVAX의 공급 목표를 완전히 충족한다고 해도, 전 세계 접종 커버리지는 집단면역에 필요한 수량보다 훨씬 적어서, 세계 인구의 약 41%가 백신을 미접종한 상태

□COVAX가 글로벌 백신 보급 확대에 미친 영향 □



[2]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적 백신 지원 프로그램

■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백신 공동분배기구인 COVAX에 대해 20억 달러 지원과 '22년까지 20억 달러 추가 지원을 배정하는 등 다양한 국제적 백신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 COVID-19에 대한 미국 내 대응 프로그램인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에도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110억 달러를 지원이 포함
-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COVAX를 통해 AstraZeneca 백신 2천만회 접종 분량을 '21년 6월까지 지원하고, Pfizer와 Johnson & Johnson, Moderna 백신 6천만회 접종 분량을 지원하는 한편, 5억회 접종 분량의 Pfizer 백신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
- 미국은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 4백만회 접종 분량의 AstraZeneca 백신을 공여했으며, 지난

4월에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인도에 1억 달러 규모의 긴급용품을 지원

-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보건 및 안전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22년 회계연도에 추가적으로 10억 달러를 배정할 계획

■ 전 세계가 직면한 COVID-19는 삼림벌채,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 기후 변화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국의 대응이 아닌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

- 따라서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공중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백신을 수입하는 등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보건 시스템과 공급망 구축이 매우 중요
- 특히 감염을 탐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조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평해야 하며, 특정 국가 내부가 아닌 전 세계와 사회의 다각적 접근이 중요

[3] 원활한 글로벌 백신 공급을 위한 정책 제언

■ 미국이 세계 공중보건 리더십을 회복하고 향후 COVID-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 미국 정부는 원활한 글로벌 백신 배분을 위해서 △COVAX 활용을 강화하고 △백신공여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민관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연방차원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공평한 글로벌 백신 배분을 위한 정책 제언 □

주제	주요 내용
1. COVAX 활용 강화	• 백신의 글로벌 배분 역량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다자간 협력구조, 특히 COVAX를 적극적으로 활용
2. 백신 공여와 국제협력 강화	• 양국간 백신 공여, 보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직접 투자, 통관·보관·운송·라스트마일배송 등 자국내 유통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다국간 협력구조의 격차를 해소 • 'AIDS 대응을 위한 미 대통령 긴급계획(PEPFAR)'을 이러한 플랫폼의 사례로서 참고
3. 민관파트너십 강화	• 기존 백신 공급 체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강화 필요 • 백신의 보다 신속한 수송과 보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 부문의 지식을 적극 활용
4. 관행 타파	• 국제 무역과 조세 및 관세와 관련된 과거의 정책이 신속한 백신의 수송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
5. 총체적 접근	• 모든 정부 기관의 제도 및 기술적 역량을 동원하는 연방정부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 • 동시에 모든 정부기관들에게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
6. 적극적 참여	• 공중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해 지역 사회와 일반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 촉진 • 지역 사회와 일반 시민들은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공중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가치높은 이해와 관점을 보유

[CSIS, 2021.06.23.; Nature, 2021.03.25.]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Fitbit, COVID-19 감염자의 신체와 행동 변화 추적에 유용

■ **미국의학협회(AMA) 저널 중 하나인 '자마네트워크오픈(JAMA Network Online)'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제조업체인 핏빗(Fitbit)에서 수집된 건강 데이터는 COVID-19 감염에 의해 유발된 활동, 수면, 휴식시 심박수 변화를 설명**

- 사용자의 심박수 등을 체크하는 Fitbit社의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COVID-19 감염자들은 휴식을 취할때도 심박수가 올라가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초로 COVID-19 증상이 발현되고 79일이 지나도 지속
- 이에 비해 걸어다닐 때나 수면 중의 심박수는 평균적으로 32일과 24일 후에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VID-19에 감염된 조사 참여자들의 일부인 13.7%에서는 최초 증상이 발현된 이후 133일이 지나도 과거보다 1분당 평균 5회 이상 심박수가 증가
- 이러한 현상은 기침, 전신 통증 및 가쁜 호흡 등의 증상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구진들은 웨어러블의 COVID-19 추적 기능에 높은 가치를 부여

[Fierce Healthcare, 2021.07.09.; JAMA Network, 2021.07.07.]

미국, COVID-19 확산 기간 중 22개주 원격의료법 개정

■ **미국 민간재단 연방기금인 커먼웰스펀드(Commonwealth Fund)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가 확산되는 기간동안 미국 22개주에서 원격진료법을 개정**

- '20년 3월~'21년 3월 기간 중 미국의 22개 주는 원격의료를 개인 및 집단 의료 보험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COVID-19의 확산에 따른 공중 보건 시스템 붕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방식으로 변경
- '20년 3월 미국 연방 정부는 일시적으로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원격의료를 사용하는데 적용되는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각 주 정부와 의료보험 회사들도 유사한 형태의 제도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독려
- 일부 주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완화 조치를 관보 게재나 행정명령 등의 형태로 시행했으며, 이러한 완화조치를 입법의 형태로 영구화한 경우는 현재 8개 주에 불과

[Healthcare IT News, 2021.06.24.; The Commonwealth Fund, 2021.06.23.]

영국 DHSC, Post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데이터 전략 발표

■ **'21년 6월 22일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HSC)는 '데이터가 생명을 구하고 데이터로 건강 및 사회복지를 재편성'이라는 정책 문서 초안을 발표하고 데이터의 사용 방법과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와 NHS는 의료 보험과 사회보장 분야에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NHS와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기관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데이터보호의 강도와 관련 윤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
- 이 새로운 전략은 NHS와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기관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
- 또한 △의료 및 사회보장 관련 전문가들의 데이터 접근방법 △정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방법, △사회보장을 위한 데이터 개선방법 △연구와 혁신을 위해 연구자들의 데이터 활용방법 △데이터에 부합하는 기술의 개발방법 등을 제시
- 특히 이 전략은 보건 의료 시스템 내에서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익명화하여 수집, 저장 및 공유하는 일관된 표준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Addleshaw Goddard, 2021.07.05.; GOV.UK, 2021.06.23.]

유럽, 일상적인 건강정보시스템의 개선 필요

■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럽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건강정보시스템(RHISs)'이라는 연구를 통해 '07~'20년 사이에 3~14개국을 망라하는 12개 저널에 발표된 20개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 의료진들이 신기술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발견하고 RHIS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

- 유럽지역 WHO 보건 전문가들은 RHIS가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실제 의료진들은 신기술 사용을 기피하는 것을 발견

  *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RHISs의 사용을 꺼리게 되는 이유는 실행과 평가에 대한 전략 부족과 관련 장비와 지원 재정 및 인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상황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RHIS의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데이터 입력이 쉬워야 하고 사용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직관적 구조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 또한 △조직 측면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포함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행동 측면에서는 보건 의료 전문가나 일반 대중들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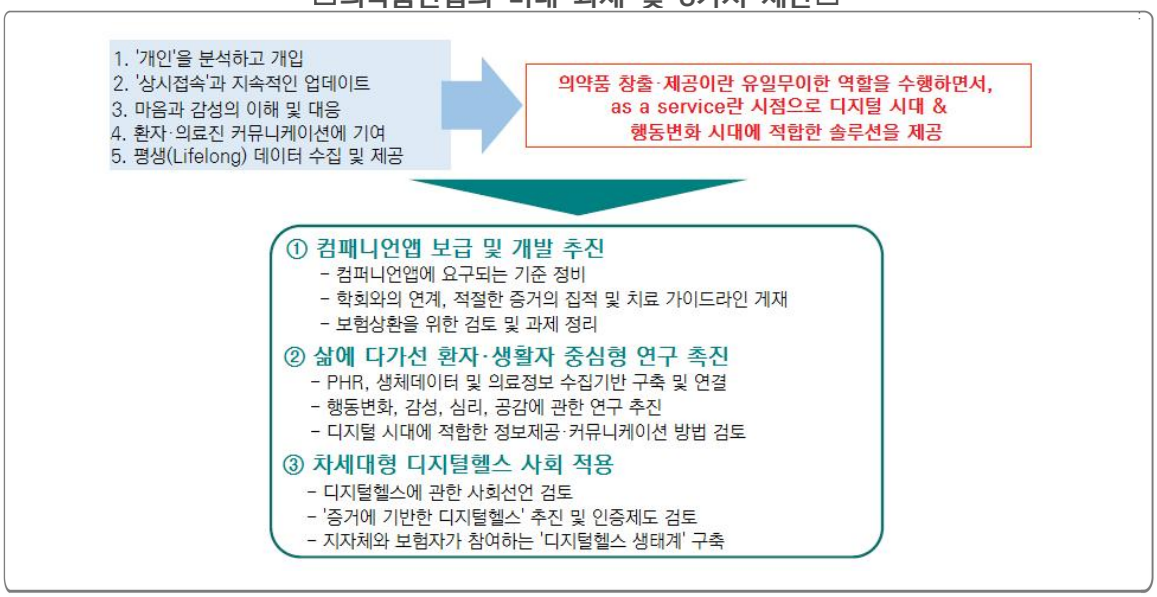
[WHO/Europe, 2021.07.07.; MDPI, 2021.04.27.]

의료헬스케어 분야, 패러다임 전환이 가져올 변화

■ **COVID-19은 온라인진료와 함께 IoT,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디지털 전환(DX)을 가속시켰고,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헬스케어의 패러다임 전환은 의약품 산업에도 변혁을 촉진**

- 향후 의료헬스케어에서 '질병의 치유'라는 환자, 의료관계자, 보험자, 사회적인 가치가 아니라 '건강 리스크 예측 및 회피' '질병의 예방·중증화 예방' '질병을 치료한 사람이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

□의약품산업의 미래 과제 및 3가지 제안□



[医薬産業政策研究所, 2021.07.08.; 経済産業省, 2021.03.]

모바일헬스앱,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프라이버시 정책 강화 필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바일헬스앱의 상당수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15,000개가 넘는 무료 앱들이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헬스 관련 애플리케이션 역시 중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

-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 Macquarie 대학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모바일헬스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헬스앱의 88%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 중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명시하거나, 사용자의 데이터로 향후 어떻게 앱을 개발할지를 밝히는 앱은 20,991개이며, 이중 28.1%에 해당하는 앱은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을 미공개

[Medical News Today, 2021.06.21.; Healthcare Dive, 2021.06.16.]

4대 보건산업

미국, 응급실 이용을 기피하는 자기부담금 높은 보험 가입자

■ **미국은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이 높은(high deductible) 의료보험 가입자일수록 가슴 통증 등의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

- 최근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실제로 환자들이 병원에 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있으나, 사회 경제적으로 저소득 환자들의 경우 의료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본인 부담금이 높은 상품과 낮은 상품에 가입한 그룹을 비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이 높은 상품에 가입한 그룹이 가슴 통증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4%p 낮았으며, 입원이 필요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비율은 11%p나 낮은 것으로 조사
- 특히 저소득층이 본인 부담금이 높은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이후 30일 이내에 심장 마비를 경험하는 비율이 1/3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

[Healthline, 2021.6.30.; Circulation, 2021.06.28.]

미국, 제약회사의 합병 평가시 법적·경제적 효율성 검토

■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제약 분야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검토한 합병은 67건이었으며, 그 중 66건에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는데, 반독점금지법에 따른 강제 합병 시행은 경쟁과 소비자 복지를 촉진하는 데 유효한 조치로 평가**

- 미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 경쟁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합병과 관련된 판결을 내릴 때, 1914년 클레이튼 반독점법(Clayton Antitrust Act of 1914) 제7조에 따라 건전하고 경험에 근거한 경제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강력하게 요구

  * 클레이튼 반독점법은 제2조: 가격차별, 제3조: 연계판매와 배타적거래, 제7조: 경쟁기업의 취득, 제8조: 경쟁기업들간의 임원겸임의 4가지 기업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위축하거나 독점을 야기할 경우에 이를 위법으로 규정

- FTC 역시 '10년 수평적 합병에 대한 가이드라인(Horizontal Merger Guidelines)과 '20년 수직적 합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거 기반의 접근과 분석이라는 판단 기조를 유지
-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부설 머카터스연구소(Mercatus Center)는 최근 반독점법 제7조의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 의견들은 불필요하며, 특히 현재 제안되고 있는 수정안들은 소비자의 복지를 저해하고, 반독점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

[Mercatus Center, 2021.06.25.; Tech Crunch, 2021.07.10.]

영국 의료기기 제품, '23년부터 UKCA 마크 획득 필요

■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의료기기와 체외진단(IVD) 제품을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등록해야 하며 영국적합성평가(UK Conformity Assessment, UKCA) 마크 표시는 '23년 7월 1일부터 의무화**

- 영국은 '20년 1월 31일부로 EU를 탈퇴한 후 '21년 1월 31일부터 이행 기간을 종료함에 따라, 1985년부터 적용되어온 의료기기에 부착되는 CE 마크(의료기기의 안정성을 인증하는 마크)를 '23년 7월 1일부터 UKCA(UK Conformity Assessment) 마크로 대체할 것을 강제화
- UKCA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영국 의약품및의료제품 규제국(MHRA)에 등록해야 하며, MHRA는 등록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적합성과 관련된 평가를 수행
- 일반 의료기기 등급체계는 휠체어나 청진기처럼 위험성이 낮은 Class 1부터 수술용 클램프와 같은 Class 2a, 골격 고정판과 같은 Class 2b, 심박조율기와 같은 Class 3의 4가지로 구분
- 체외진단기기(IVDs)는 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도에 기반하여, 일반 IVDs, 자가테스트용 IVDs. 고위험 제품인 List B IVDs, 가장 높은 잠재적 위험을 가진 제품인 List A IVDs의 4가지로 구분
-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는 북아일랜드에 소재한 기업들이 제조하는 의료용 기기로, 이 기업들이 제조한 기기들은 CE 마크를 부착한 상태에서 영국 내 판매가 가능

[Medical Device Network, 2021.07.09.; Med- Tech, 2021.06.22.]

영국, 향후 10년동안의 생명과학 비전 제시

■ **영국 정부와 NHS, MHRA 등 유관기관들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생명과학 비전(Life Sciences Vision)을 제시하고, COVID-19 극복 과정의 경험을 기반으로 팬데믹과 암, 비만, 치매, 노화와 포함하여 영국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헬스케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생명과학 비전은 '17년에 제시한 '생명과학산업전략(Life Sciences Industrial Strategy)'과 '생명과학분야별협약(Life Sciences Sector Deals)'에 이어 발표된 내용으로 영국의 EU 탈퇴와 COVID-19 팬데믹의 영향, NHS의 조직 개편 등의 요인들을 반영
- 비전은 COVID-19 대처과정을 통해 △미래의 질병을 막기 위한 새로운 업무 수행 방법, △영국의 유전공학과 건강 데이터에 기초한 과학 및 치료 연구의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
- 또한 △진단과 구매 및 혁신 기술 확산을 위한 NHS 지원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 환경의 구축 등 주요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출 예정

[HM Government, 2021.07.06.]

일본, COVID-19 백신 개발에 관한 과제 및 대책

■ **COVID-19 팬데믹의 유력한 해결책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최초 환자 보고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백신을 개발한 반면 일본의 백신 개발은 늦어지는 상황**

- 일본의 임상의학분야, 기초생명과학 분야 전체 논문건수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COVID-19 관련 논문건수는 다른 나라보다 적고, 백신을 제조·개발할 수 있는 일본기업은 4개 정도이며 백신제조 개발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세계 백신시장 상위 기업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
- 일본에 상장된 바이오벤처가 매우 적고, 그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가 주력하는 대상은 대부분 암인데다 전체적으로 임상개발 단계보다 탐색단계가 많은 실정
- 일본은 세계적인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백신개발 잠재력도 있지만 COVID-19 팬데믹에 국가 전체가 총력을 다해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사실
- 전문가들은 평상시 팬데믹에 대한 연구체제를 정비하지 않았고, 질병구조가 변화하면서 의학연구에서 감염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감염병 관련 연구 사업이나 연구자가 줄었다는 점 등이 COVID-19 백신의 신속한 개발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적
- 연구개발 시 지원을 받기 위한 각종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며, 제약회사들은 백신은 항암제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고 평소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백신개발이 늦어지는 이유

[文部科学省, 2021.06.30.; 現代ビジネス, 2021.07.08.]

중국, 미용 및 퍼스널 케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분석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1~'25년 기간 동안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미용 및 퍼스널케어 성장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들의 디지털 활성화 전략, 전자상거래 채널의 뛰어난 성과에 힘입어 중국의 미용 및 퍼스널케어 시장은 급신장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들은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과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공격적인 판매 촉진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
- 중국 시장에서 로레알(L'Oréal)은 COVID-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두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으며, 시세이도(Shiseido)도 618 쇼핑데이를 포함하여 중요한 쇼핑 축제기간 동안 성공적인 온라인 전략을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Cosmetics Design Europe, 2021.06.29.; Jing Daily, 2021.06.28.]

백신관광, COVID-19 시대에 새로운 의료관광의 형태로 부상

■ **'20년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약 198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48% 감소했으며 원거리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타격이 큰 상황에서, COVID-19 백신이 부족한 국가의 거주자들이 美 뉴욕처럼 관광객도 백신접종이 가능한 도시를 찾는 백신관광이 새로운 의료관광으로 부상**

- 의료관광 시장은 전문의의 검진과 치료가 목적인 의료관광과 질병 치료보다 의사의 조언이나 시술을 통해 건강상태를 개선해 삶의 질(QOL)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의료관광으로 구분
- 전자의 경우 IT고도화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진료가 가능해졌고 대면진료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만 향후 병원을 찾을 원거리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전 문진이 가장 큰 장점
- 후자인 소위 웰니스 관광은 이동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진료로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COVID-19 사태가 진정되면 수요가 이전 상태로 복원될 것으로 예상
- 한편 발리와 괌의 백신관광의 경우 일시적 상품이겠지만, 백신접종에 웰니스 관광을 추가한 것은 면역력 향상 같은 새로운 형태의 웰니스 관광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日本経済研究センタ , 2021.06.07.; 日本經濟新聞, 2021.06.28.]

WHO, 중증 COVID-19 치료제로 인터루킨-6 수용체 차단제 권고

■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COVID-19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구할 수 있는 의약품 가이드라인에 부신피질스테로이드호르몬제제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corticosteroids)에 이어 인터루킨-6 수용체 차단제(interleukin-6 receptor blockers)를 포함시켰다고 발표**

- 이번 발표는 WHO의 전향적인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 의한 것으로, 지금까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가장 광범한 연구로 27개 임상시험에 등록한 10,000명의 환자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에 기초

  * 인터루킨-6 수용체 차단제는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6와 결합하는 단백질에 대신 결합하여 인터루킨-6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과도한 면역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전을 보유

-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터루킨-6 수용체 차단제를 사용할 경우, 표준 요법을 사용한 환자에 비해 사망률을 1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해야 하는 확률은 표준요법에 비해 28%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 또한 WHO는 백신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소득 국가들이 이러한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사들에게 약품 가격을 내리고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보다 투명하고 저소득국가들을 포함하는 형태의 협약을 맺을 것을 촉구

[WHO, 2021.07.06.]